

# 국가지정 기록물이 된 3·1운동 독립선언서

글. 이정은(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 1. 국가지정기록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생산된 것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 여기에는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보성사판과,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같은 내용의 다른 판형 선언서인 신문관판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가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48종의 독립선언서류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전민족적 참여양상,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로서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1〉 새로 지정된 독립선언서류 목록

이번에 새로 지정된 독립기념관 소장 독립선언서류 48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연 번 | 기록물명                         | 수 량 | 생산자       | 생산년도 | 비 고 |
|-----|------------------------------|-----|-----------|------|-----|
| 1   | 대한독립선언서                      | 2   | 하와이대한민국민회 | 1919 |     |
| 2   | 독립선언서 (영문)                   | 4   | 하와이대한민국민회 | 1919 |     |
| 3   | 독립선언서 (국한문)                  | 1   | 하와이대한민국민회 | 1919 |     |
| 4   | 경남 통영의 3·1운동 격문 (동포에 격하노래!!) | 1   | 배익조 외 진평헌 | 1919 |     |
| 5   | 3·1독립선언서 (보성사판)              | 1   | 최남선       | 1919 |     |
| 6   | 경남 하동에 배포된 독립선언서             | 1   | 박치화 외     | 1919 |     |
| 7   | 평북 철산의 유봉영에게 우송된 독립선언서       | 1   | —         | 1919 |     |
| 8   | 3·1독립선언서                     | 1   | —         | 1919 |     |
| 9   | 2·8독립선언서                     | 1   | 조선청년독립단   | 1919 |     |
| 10  | 3·1독립선언서                     | 1   | 최남선       | 1919 |     |
| 11  | 대한독립선언서 (신문관판)               | 13  | 김교헌 외     | 1919 |     |
| 12  | 조선독립선언서 (朝鮮獨立宣言書)            | 8   | 한규설 외     | 1919 |     |
| 13  | 대한독립여자선언서 (1919.2)           | 12  | 애국부인회     | 1919 |     |
| 14  | 3·1독립선언서                     | 1   | 최남선       | 1919 |     |
| 총 계 |                              | 48점 |           |      |     |

## 2. 새로 지정된 독립선언서류 이야기

### ■ 대한독립선언서

하와이 대한민국민회에서 1919년 4월 한민족의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독립선언서로, 태극기와 무궁화로 장식하고 영어로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라는 제목 아래 서울에서 발표된 민족대표 33인의 3·1독립선언서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을 알리며 각료 명단, 임시현장, 선서문, 정강을 함께 실었다.



●● 대한독립선언서

■ 영문 독립선언서

개성의 남감리교 남문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김지환(金智煥, 호 一泉)은 “파리 강화회의의 열국 위원들에 송부할 의 견서 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의 각 초안과 독 립선언서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현순(玄楯) 목사에게 중국 우편으로 우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문서들을 가 지고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의 남대문 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역에서 내려 압록강 철교를 건너 안동현에서 목회를 하는 김병농(金炳禮) 목사를 집으로 찾아가 김병농의 아들 김태규(金泰圭)에게 가지고 온 문서를 중국 우편으로 상해 의 현순 목사에게 전달되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국내의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현순목사는 이를 번역하여 원문과 영문 독립선언서를 상해와 미주의 동 포사회와 언론에 전달하였다.

영문판 독립선언서는 이 외에도 국내의 외국인 선교사들 이 번역하여 본국 가족이나 선교회본부에 비밀리에 보고한 것 등 번역에서 차이로 대략 7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 국 가기록으로 등록된 것은 그 중의 하나이며, 여러 번역의 존 재는 국가 기록으로서 독립선언서는 어떤 영문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기한다.

〈표-2〉영문독립선언서 종류

| No. | 발행처/출처                   | 제목<br>첫줄                                                                                                                                                                                         | 비 고                                                                                                                                     |
|-----|--------------------------|--------------------------------------------------------------------------------------------------------------------------------------------------------------------------------------------------|-----------------------------------------------------------------------------------------------------------------------------------------|
| 1   | 대한민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br><br>We herewith proclaim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Korean people                                                              | 1. 도산 안창호 자료 중에서 내용<br>2. 병자수호조약 연대를 1636년으로 표기<br>3. 현순 번역으로 추정<br>4. 1919. 3. 28자 호놀룰루 발행 영자지(제호미상) 에도 "Menifesto" 제목 하에 같은 내용 전문이 실림 |
| 2   | 현순자료                     |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br><br>We herewith proclaim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Korean people                                                              | No.1과 동일, 병자수호조약 연대를 1876년으로 수정                                                                                                         |
| 3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 A PROCLAMATION<br><br>We herewith proclaim Korea an independent state and her people free.                                                                                                       | 타이핑                                                                                                                                     |
| 4   | 매크레 자료                   | A PROCLAMATION.<br><br>We proclaim, herewith, Korea an independent state and her people free.                                                                                                    | No.3과 유사<br>전문 타이핑<br>“공문서관 복사”                                                                                                         |
| 5   | 필라델피아 장로교 역사과 문서고-1      | 제목 없음<br><br>We now proclaim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people.                                                                            | 전문 타이핑<br>선천(원문: Sensen)에서 선교사 Henry가 미국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 포함                                                                                |
| 6   | 필라델피아 장로교 역사과 문서고-2      |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br><br>We now proclaim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her people.                                             | No.5와 비슷하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
| 7   | Peking Leader 1919. 3.14 | Text of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br><br>We, the Korean nation, hereby declare the independence of Korea before all nations, assuming that this will be generously recognized by them. | 영문 선언서 중 가장 의역한 영문                                                                                                                      |

■ 하와이 대한민국민회 발행 독립선언서

하와이 대한민국민회에서 발행한 국한문 독립선언서는 서울의 보성서관 독립선언서와 표기가 똑같다. 하와이판과 서울 판 독립선언서의 구별은 활자에 있다. 하와이판 독립선언서는 활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글 활자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어 서울판과 구별이 된다.

■ 경남 통영의 3·1운동 격문, 「동포에 격하노라!!」

1919년 경상남도 통영군에서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4월 2일 시위는 5,000여 군중에다 기생들도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위로 발전하 는 등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펼쳤다.

이곳 만세시위는 진평헌(陳平軒)·권남선(權南善)·김형기(金炯綺) 3인이 협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진평헌 등은 양재원(梁在元)·배익조(裴益祚)·모치전(牟治田)·강세제(姜世濟)·이학이(李學伊)·허장완(許章完)과 8일 밤 송정택 집에 모여 13일 통영 장 날에 만세를 부르기로 하고 「독립선언서」를 참고하여 격문을 면사무소 등사기를 이용·인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종이를 구입한 사실이 일본 경찰에 밀고되면서 3월 9일 등사기를 반납하 는 현장을 덮쳐 전원이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렀고, 허장완은 옥사했으며, 이학이는 가석방 후 숨졌다.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받았는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지들이 남방광산·도산광산 광부, 시내 포목상점과 연계하여 3월 13일 유치원 보모 문복숙(文福淑)·김순이(金順伊)·양성숙(梁聖淑) 등이 미리 준비한 태극기 를 들고 중앙시장에서 군중과 봉기하였다.

「동포에 격하노라!!」는 처음 만세시위를 준비하다 잡혀간 통 영 청년 진평헌(陳平軒)이 지은 격문이다. 통영의 이관희씨가 이 격문은 찢겨지고 헤어진 채 낡은 자료첩에 보관되어 오던 것 을 찾아내어 정리한 것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원본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장은 유려하면서 격정적인 명문장이다. 그 일 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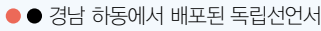
66

형제여 금수로 살려는가? 나라 없는 개가 되라.  
이 피 배인 목청으로 조국 도성은 분화(噴火)로 터졌다.  
삼천리는 전 민족의 함성과 발대죽마다  
핏물 흐르는 장엄한 세기적 행진곡이 시작되었다.  
동포여 대도(大道)의 거리로 나오려무나.  
봉사여, 귀머거리, 입 있는 병어리며, 굶주리던  
내 동지여, 삼천리 내 땅 내 거리 내 형제  
내 누이 절통히 죽은 젊은 혼들이여,  
모조리 나오려무나..... 아! 황량한  
내 산하여, 참참한 내 조국이며. 이 학살의 거리  
총알 같은 내 동포여 현재에도 살 수 없고 미래에도  
살 수 없는 형제여 어서 바빠 뛰어나와  
이 성스러운대열에 발맞추려무나.  
하늘도 땅도 청산도 녹수도 가담하리.

99



●● 동포에 격하노래!!



■ 경남 하동 박치화 등의 「대한독립선언서」

1914년 전국 지방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일제는 1917년 조선 면제를 실시하여 종래 군과 동리 사이의 연락기구 성격의 면을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친일적 면장으로 전면 교체했다. 박치화(朴致和)는 하동군 적량면 면장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박치화는 3월 14일 사표를 제출하고 정낙영(鄭洛榮)·정인영(鄭寅永)·이성우(李聲雨)·이범호(李範鎬)·박종원(朴宗源)·이병홍(李炳鴻)·정희근(鄭禧根)·김응탁(金應鐸)·이보순(李輔淳)·황학함(黃學咸)·김두순(金斗淳)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18일(음력 2월 17일) 하동 자체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내용은 “민족자결의 여론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동포들은 힘을 합쳐 최후의 일인 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하되, 폭동과 무질서한 행동[亂擧]은 행하지 말고, 인도와 정의의 독립문으로 전진하자.”로 되어 있어,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끝까지 독립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 ■ 철산 유봉영에게 우송된 독립선언서

3·1운동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의명의 한 인사가 평안북도 철산의 유봉영 앞으로 발송한 등사판 독립선언서이다. 내용은 3·1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이다. 뒷면에는 서울의 3·1운동 소식과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의 활동 소식, 철산의 봉기를 촉구하는 글이 적혀있다. 3·1운동의 지방 확산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 선언서를 전달받은 원봉(圓峯) 유봉영(劉鳳榮)은 1897년 1월 27일(음력) 평북 철산군 고성면 출신이다. 1910년에 철산읍내 신명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상경하여 YMCA학관 영어과에서 공부하여 1916년에 고향의 명흥학교 교사가 되어 영어와 역사, 지리를 가르치던 중 3·1운동을 맞았다.

서울에서 우송된 등사판 선언서를 받은 유봉영은 고향에서 8~9명의 동지들과 수차례 의논하여 철산을 장날을 기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5~6천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격렬한 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유봉영은 시위 주동자로 수배되자 상하이로 망명하여 이회경 등과 대한적십자사를 창설했으며, 고향의 토지를 처분하여 마련한 5000원으로 평판인쇄기계를 구입하여 상해판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데 힘썼다. 상해, 만주 등지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와 석방을 수차례 되풀이한 끝에 1936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그후 생애의 대부분을 언론인으로서 활동했다.

## ■ 목포 정명여중 발견 필사 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는 1983년 2월 14일 목포정명여자중학교 천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서 발견된 오래된 종이 문치 속에서 「2·8독립선언서」와 비밀지하신문, 격문, 독립가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원본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고, 정명여중·고 백주년기념관에는 사본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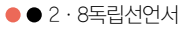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목포에서는 4월 8일,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시위로 모두 80여 명이 체포되어 심한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다.

■ 「2·8독립선언서」

도교의 각 대학 한인 유학생들은 조선기독교청년회·조선유학생학우회 등의 조직을 통해 서로 친목을 표방하면서 토론회·옹변대회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있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국면에서 고베(神戸) 영국계 영자신문 「저팬 애드버타이

저 The Japan Advertiser」 1918년 12월 15일  
인들 독립을 주장(Koreans Agitate for Independence)  
일자지 「약소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주장(Small  
To Be Recognized)」 두 기사가 유학생들의  
활성화했다. 1919년 1월 6일 학우회 주체로  
의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웅변대회를  
(尹昌錫, 청산학원)·서춘(徐椿, 동경고등사범  
琮根, 동양대학) 등 8명의 연사가 독립을 쟁  
후 실행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실행위원으로  
大學)·서춘·백관수(正則英語學校)·이종근(東  
學)·김도연(慶應大學)·김상덕(無職)·전영택  
석·최근우(東京高商)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의 방법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일  
대사·공사, 일본의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  
내기로 했다.



백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송계백은 2·8독립선언문의 한글 인쇄 활자와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 운동을 촉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송계백은 유학생 선배인 정노식(鄭魯湜)으로부터 전답을 처분한 돈을 회사받아 운동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에서 운동을 계획하던 현상윤(玄相允, 中央學校 교사)·최린(崔麟, 普成高普 교장)·송진우(宋鎭禹, 중앙학교 교장) 등을 만나 유학생 활동의 전말을 보고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결의와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3·1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월 8일 오전 10시 조선청년독립단은 먼저 도쿄 주재 각국 대사관·공사관, 일본정부의 각 대신, 일본의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 각 신문사와 저명한 학자에게 민족대회소집청원서와 독립선언서·결의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오후 2시 기독교청년회관 1층 강당에 도쿄유학생학우회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유학생 400여 명이 모였다. 최팔용·윤창석이 교대로 사회를 맡으면서 의사(議事) 명칭을 조선청년독립단대회로 변경·공포하고 조선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백관수가 등단하여 2·8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윤창석이 기도를 올렸다. 이때 일본 경찰대가 난입하여 일대 난투극이 벌어져 오후 3시 50분경 상해로 간 이광수 외

집행위원 10명 전원과 주동 학생 20여 명이 체포당하였다.

2월 12일에는 일본 의회에 독립을 청원하고 후임 실행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 모여 이달(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13명이 체포되어 해산하고 말았다.

2·8독립선언서는 한국민족이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주체성을 자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어 일제의 침략 행위를 역사적 사실에서 구체적 실례를 들어 폭로하고, 일본이 한국민족의 독립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血戰)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8독립선언은 일제의 수도 한복판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국내외의 민족운동가에게 큰 자극을 주어 3·1운동의 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학생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했다.

■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김교헌(金敎獻)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지린(吉林)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하여 무오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발표일자는 ‘단군기원 4252년 2월 일’로 되어 있고 서기로는 1919년 2월이다. 그러나 1919년 2월 1일이 음력 기미년 1월 1일이므로 ‘무오독립선언’이 되려면 발표일이 적어도 1919년 1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발표시기에 관하여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작성자 조소앙(趙素昂)의 기록에 의하면 1919년 2월경에 이 선언서를 발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필로 쓴 것을 석판으로 약 4,000부 인쇄하여 미주 하와이 등 주로 해외 주요 독립운동가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국내 세력과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서명자는 김교헌, 김동삼, 조소앙, 신규식, 안창호 등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던 대표적인 인사들이 망라되어 실질적인 민족대표단이라 할 수 있다는 점,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

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하고, 2천만 동포들에게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시할 것과 육탄혈전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

■ 조선독립선언서

1919년 2월(음력) 만주의 임강현 모아(帽兒) 부근에서 한규설(韓圭謨)등에 의하여 선포된 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의 첫머리만 약간 고쳐 만든 간략한 독립선언서이다. 이 선언서에는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 조선인의 자유를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평등의 대의를 복명(復命)하고,이로써 자손 만대에 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가지게 한다”로 되어 있다. 서명자는 한규설·곽종석(郭鐘錫)·전우(田愚)·최린(崔麟)·윤용구(尹用求)·손병희(孫秉熙)·오세창(吳世昌) 등이다.

■ 대한독립여자선언서

1919년 4월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에서 한국 독립을 선언한 문서. 국내에서 독립선언과 3·1운동이 진행되자 간도

●●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 3·1독립선언서(신문관판)



●● 대한독립여자선언서(1919.2)

애국부인회 김인종·고순경·김오경·김숙경·김숙원·최영자·박봉희·이정숙 · 김인종등 8명은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대한독립여자선언서」를 작성 인쇄하여 국내의 각지에 배포하였다. 선언내 내용은, “유정(有情)한 남자들은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 기와(起臥)하면서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한 여자의 일단이나,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이므로 주저함이 없이, 살아서는 독립기 아래서 활기 있는 새 국민이 되고 죽어서는 구천하에서 수많은 선철을 찾아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가는 의무이므로, 동포여 빨리 분기하자. ……”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선언서는 특히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당시 여성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와 신문관판 3·1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33명의 조선민족대표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 제목은 「선언서」로 되어 있으며,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기초하였다. 3·1운동기에 나온 여러 종류의 독립선언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서」 또는 「민족대표독립선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손병희·최린·최동진·오세창이 대체적인 선언서의 취지를 협의하였으며, 감정에 흐르지 말고 온건한 표현으로 할 것,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등의 지침을 주며 1월말 경 문필가인 최남선에게 기초를 맡겼다. 육당은 이 선언서 초안을 2월 10일경 완성하여 2월 15일 최린(崔麟)에게

전달하였다.

최린이 이 초안을 받아 벽에 걸린 거문고 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손병희·권동진·오세창에게 보여 동의를 얻은 후 함태영에게 주어 기독교측의 동의도 구하였다. 독립선언서 인쇄는 오세창의 책임하에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 사장 이종일에 게 맡겼다.

이 독립선언서는 두 가지 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보성사판’으로 불리는 것과 ‘신문관판’으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가로 49.8cm 세로 23.3cm 용지에 4호-14포인트 활자로 1줄에 38자 46줄의 횡서 본문과 공약 3장, 조선민족대표 명단으로 된 것이며, 첫 문장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에서 국호 조선(朝鮮)이 선조(鮮朝)로 글자가 바뀌어 있다. 뒤의 것은 가로 36.2cm 세로 25.5cm 용지에 더 작은 5호10.5포인트 활자로 1줄에 60자, 34줄의 본문과 공약3장, 조선민족대표명단으로 되어 판형이 서로 다르며, 박상(剝喪)과 박탈(剝奪) 선창(宣暢)과 선양(宣揚) 등의 낱말과 띄워쓰기 등의 표기가 다르다. 책마다 두 가지 다른 판 선언서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3. 국내외에 배포된 「선언서」는 어느 것인가?

그러면 당시 국내외에 배포된 「선언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3〉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와 3·1운동 관련 문서의 도판에 수록된 선언서 판본 비교

| 출처                      | 선언서                                 | 출전/소장처                                                                            | 표 기                                  |
|-------------------------|-------------------------------------|-----------------------------------------------------------------------------------|--------------------------------------|
| 일제<br>수거<br>선언서         | 최초로 발견한 선언서                         | 日本陸軍省, 『極秘朝鮮獨立運動史料叢書』3・1運動篇 11, 韓國出版文化院, 1989, pp. 87~102                         | 보성사판                                 |
|                         | 3월 1일 경성 시내 및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에서 발견된 선언서 | 국가보훈처, 『獨立宣言書及其他의 概文』                                                             |                                      |
|                         | 일문 번역본                              | 朝鮮總督府, 『朝鮮人の騷擾觀』, 1919. 5. 17                                                     |                                      |
| 지방에<br>보내진<br>선언서       |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 수록 선언서                   | 조선헌병대사령부, 『朝鮮三一獨立騷擾事件』, 1924, p. 392~396                                          | 신문관판                                 |
|                         | 철산 유봉영 앞 우송 등사판 선언서                 | 독립기념관 소장                                                                          |                                      |
|                         | 목포 정명여중 필사 독립선언서                    | 독립기념관 소장                                                                          |                                      |
|                         | 상주 발견 프린트 독립선언서                     | 독립기념관 소장                                                                          |                                      |
| 해외에<br>보내진<br>독립<br>선언서 | 미도소장본 독립선언서                         | (미도는 고문서 업체임)                                                                     | 보 성 사<br>80%<br>신 문 관<br>20%<br>보성사판 |
|                         | 안창호자료속의 필사 독립선언서<br>필사 독립선언서        | 이선언서는 활자를 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민족대표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필사한 것이라는 부전지 있음(컬럼비아대 도서관 김용중 자료) |                                      |
|                         | 이승만, 이화장 문서, 독립선언서 인쇄본              | 하와이 대한민국민회본 아님                                                                    |                                      |
|                         | 전명운 의사의 낭독용 선언서                     | 해외활동                                                                              |                                      |

〈표-4〉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와 신문관판 3·1독립선언서의 비교

두 판본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 보성사판               | 신문관판                            |                                 |
|----------------|--------------------|---------------------------------|---------------------------------|
| 한자<br>표기<br>차이 | 문단1                | 鮮朝                              | 朝鮮                              |
|                | 문단2                | 并進                              | 並進                              |
|                | 문단3                | 剝喪                              | 剝奪                              |
|                | 문단4                | 宣暢, 苦恥                          | 宣暢, 苦耻                          |
|                | 문단5                | 植民地, 懲辦, 併合, 四億萬,               | 殖民地, 懲辦, 合併, 四億                 |
|                | 문단6                | 回穌, 躊躇                          | 回蘇, 躊躇                          |
|                | 문단7                | 并進, 陰佑                          | 併進, 陰祐                          |
| 공약3장           |                    |                                 |                                 |
| 한글<br>표기<br>차이 | 문단1                |                                 |                                 |
|                | 문단2                | 誠忠를                             | 을                               |
|                | 문단3                | 하매                              | 함에                              |
|                | 문단4                | 銷殘을, 안이, 하매                     | 銷殘를, 아나, 함에                     |
|                | 문단5                | 食하였다, 업는, 이오, 리오, 도다, 갈스록, ㅅㅅ ㄷ | 食하였다, 업는, 이오, 리오, 노라, 갈사록, ㅁ, ㄷ |
|                | 문단6                | 하느도다, 업스며, 업도다, 呼吸을             | 하난도다, 없으며, 업도다, 呼吸을:탈자)         |
|                | 문단7                | 업시, ㄷ                           | 없이, ㄷ                           |
| 공약3장           | 오족, 것이오, 말라, 어대, ㄷ | 오직, 것이요, 말나, 어데, ㅁ              |                                 |
| 기타<br>차이       | 크기                 | 49.8×23.3cm                     | 36.2×25.5cm                     |
|                | 문단                 | 7문단(舊時代의 유물...을 나눔)             | 60자×47줄(제목, 명단, 띄워쓰기 포함)        |
|                | 조판                 | 38자×61줄(제목, 명단, 띄워쓰기 포함)        | 60자×47줄(제목, 명단, 띄워쓰기 포함)        |
|                | 띄워쓰기               | 안함                              | 함                               |
|                | 부호                 | 공약삼장의 정의, 인도, 심표                | 중간 심표 없이 끝에 마침표。                |
|                | 들여쓰기               | 안함                              | 문단마다 1자                         |
|                | 글자크기               | 14포인트                           | 10.5포인트                         |
|                | 명단                 | 횡 7줄, 종 5단                      | 횡 5줄, 종 7단                      |
|                | 지질*                | 마카오 갱지                          | 노로지                             |

이 선언서에 나타난 침략국 일본에 대한 의식은 대립적, 적대적이지 않고 상보적이다. 이와 같은 독립선언서의 의식은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적인 면은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또 그 해결방안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 정신주의이라고 지적받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고차원적 이상을 표방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고상한 동기에 고무되어 대중시위운동에 나서도록 고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공약3장은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첫째, 고원한 자유의 이상으로 행동할 것이며, 배타적 감정으로 내달리지 말 것. 둘째,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독립을 정당하게 주장하라. 셋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비폭력으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은 당시 한국사회의 신흥종교였던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과 불교계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림과도 연결이 시도되었으나, 촉박한 시실 때문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림들은 따로 유림단의 파리장서라고 일컬어지는 「증파리평화회의서」가 작성되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전달되었다.

독립선언서는 종교교단과 학생대표들을 통하여 사전에 전국으로 전달되었고, 서울 광무황제 국장에 참여한 수만명의 지방인사들에 의해 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을 확산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지방에서 등사판 등으로 재제작하여 시위에 배포하는 예가 많았다. 

필자 소개 writer introduction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사)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사)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3·1 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고양독립운동사」, 「파주독립운동사」, 「3·1운동의 열 유관순」, 「김성욱 평전」 등이 있다.